

서호인의 '소설처럼'



비인간에게서 얻은 진짜 인간다움

-예소연 장편소설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일까? 인본주의와 합리적 사고, 배려와 예의, 과학과 기술, 믿음과 헌신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어를 떠올린 채 지금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가?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 대답하기 주저하게 된다. 인간은 같은 인간을 괴롭히고, 혐오하고, 때리며, 심지어 죽인다. 멀리 팔레스타인에서는 그저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가까운 편지점에서는 일하던 여성이 쇼트컷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우월주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멀리 태평양에는 웬만한 도시 하나 크기의 쓰레기 섬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가까운 도심에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컵, 비닐 따위가 굴러다닌다.

스로 살아남은 용병이다. 그리고 할머니다. 세 할머니는 그들의 유년과 청년 시절 대부분을 전쟁을 치르며 보냈다. 전쟁은 끝났고 수많은 병사의 생과 사가 나뉘던 전장은 이제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바이러스가 퍼져 생물은 절멸했고 남은 인간은 트라우마를 만들어 바깥 세계를 격리한다. 밖으로 떠밀린 세 할머니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정'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다른 인간이 아닌 고양이 '치즈'였다.

치즈는 그냥 고양이야 아닌 로봇 고양이고, 그들 앞에 나타난 치즈는 하나가 아닌 집단으로서 치즈다. 로봇 고양이는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로봇 고양이와 공유한다. 그들은 단독자로서 치즈이기도 하지만 전체로서도 치즈이다. 로봇 고양이는 원래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해 인간의 농사일을 돕는 역할을 했으나, 그들은 학습과 계산을 통해 기후 위기와 재난에 속수무책일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다. 로봇 고양이의 예측대로 되어버린 세계에 세 할머니는 남겨졌고, 그들은 그토록 찾았던 인간(정) 대신 비인간(치즈)을 마주한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게 분명한 인간 대신에,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면 어떨까? 그들은 인간적이지 않기에 인간과 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AI는 공리를 위한 학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바둑과 체스의 수

만 가지 길을 파악했듯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갈 여러 갈래의 가능성도 모조리 파악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 이 감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알아버린 AI가 내리는 인간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지...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거짓말이거나 인간에게나 어울리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AI가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종말을 그리지는 않는다. 다진 발목에 치즈의 데이터를 이식해 비인간적 요소를 갖게 된 창과 원래부터 비인간이었던 치즈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으로, 소설의 말미를 이끈다. 비인간이 인간이 되는 순간은 아마도 아래와 같은 대사에서 빛을 발한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분석과 예측 따위로도 그 힘을 파악하지 못해. 수백만 개의 기도가 모인 데이터를 상상해 봐."

그렇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또 다른 우리는 전쟁 중에 삶을 기도하고, 폭력 앞에서 존엄을 지킨다. 그조차 인간다움이라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인간을 조금은 보듬어주고 싶어진다. 인간이 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우리는 참 애 쓰고 있구나,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비인간인 창과 치즈는 아이(인간)를 찾으러 나선다. 우리도 다시 인간 안에 있는 진짜 인간다움을 더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막 한가운데나 동굴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꼭. <시인>

인간을 인간이 죽이고 때리는 이유는 대체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정념이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지구를 해치는 이유는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앞의 편리함만 쫓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끝도 없이 해왔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신인 작가 예소연의 SF 장편소설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은 위와 같은 인간적 실수를 반복해 결국에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인간들을 다룬다. 그 인간 중 그나마 덜 인간적이지, 편협은 인간 셋이 있다. '아사', '창', '말리'. 그들은 40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가까

의료칼럼



박상철 상무365한방병원 전문의

월경통

원발성 월경통은 대개 배란 주기가 확립되는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하고, 보통 월경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시간 전에 시작되어 대부분 72시간 이내로 지속된다. 분만통과 비슷한 치골 상부의 경련통을 일으키고 요통, 대퇴부 연골통, 오심, 구토, 설사, 복부 팽만감, 두통, 피로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속발성 월경통은 초경으로부터 수년 후 배란 주기에 관련 없이 증상이 날 수 있고, 월경 후 수일간 지속되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에 통증 경감이 덜하다.

월경통은 자궁의 수축에 의해서 야기되는데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 자궁 내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자궁 내 혈류량이 감소하여 자궁에 허혈성 통증이 발생한다. 프로스타글란딘(생체 내에서 합성된 생리 활성물질)과 바소프레신(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 펩티드 호르몬)이 원발성 월경통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영양, 체력, 빈혈, 스트레스, 자율신경기능 저하, 기타 기질적 문제, 전장 관절 변위와 부정교합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감별 진단을 위해 기저질환의 확인이 필요하다. 골반 내진,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 월경통은 통경(痛經), 경행복통(經行腹痛), 경기복통(經期腹痛)에 해당하고 정신적 인자, 체질의 쇠약, 육음(六淫)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원발성 월경통의 양방적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제(NSAIDs)나 호르몬 피임제 등이 있으나, NSAIDs의 경우 20~25%의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고 장기복 복용 시간질한, 신장질환,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위염 및 위궤양 환자나 아스피린계 과민 반응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임제의 경우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오심, 구토, 부종 등의 부작용이나 정맥 혈전증 등의 위험이 있어 장기 복용의 어려움이 있다. 한방에서는 침, 부항 등을 통해 막힌 기혈을 풀어주고 뜸, 한약을 통해 자궁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자궁 내 혈류량을 늘려 통증을 감소시키고, 추나 요법 등을 통해 변위된 전장관절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한다.

월경통이 있는 학생 및 좌식 생활자의 경우 운동을 권고하는데 요가, 스트레칭 등의 이완운동을 추천한다. 하지만 수영 등 아랫배가 차가워질 수 있는 운동은 추천하지 않는다. 잠을 충분히 자고, 딱 끼는 옷을 입지 않아야 하며 아랫배, 허리 골반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리통은 2~3개월 간의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 생리통은 삶의 질과 학습능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부터 평균 50세까지의 여성들은 매달 한번씩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월경관란증 때문이다. 한달에 한번 여성을 괴롭히는 월경통은 전 세계 가입기 여성의 50~90%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여중생 및 여고생의 78% 정도가 매달 경험한다고 한다. 젊을 여성일수록 발생 확률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의료진료비는 2배 이상 증가했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경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업 및 업무 효율성을 저해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월경통은 골반 내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월경시에 주기적인 통증을 보이는 '원발성 월경통'과 골반내의 병리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속발성 월경통'으로 나뉜다.

기고



한재섭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지역마져 지역문화를 포기해선 안된다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했다. 정부의 이런 국정 기조는 2021년 국토연구원/한국리서치의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45.2%)고 조사되면서 문화-예술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전문인력의 격차가 문화 향유 기회의 격차로 연결되고 지역민 정주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 소멸의 주범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로만 '지방시대'라고 해놓고 예산은 삭체해버리는 중앙 정부에 맞서 지방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12회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황의석, 양윤서 감독이 매곡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든 '수상한 교실'은 11회 서울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초등교사 영상모임 참네모(회장 임성열)에서 공동 창작이 필수인 영화를 교육 재료로 삼아 아이들에게 나와 이웃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키워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 창작으로 공동체의 감수성을 익히고 극장의 큰 스크린에서 자신의 영화가 상영되는 체험을 하고 온갖 영화들이 모이는 영화제에서 나와 다른 세계의 문화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경험은 그대로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귀중한 밑거름이 된다. 훗날 직업으로 영화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또 한창 논란거리인 아이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높고 기성세대들이 알기불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아이들은 현명한 선생님들과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역 영화 예산은 수도권 사람들만 영화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단 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단비가 내년부터 부산과 대구, 경기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 사방에서 곡소리만 들려온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역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당의 색깔을 떠나 협력해달라. '지역'이란 대명사 앞에 당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참에 '지역'이란 화두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낼 수도 있다.

더불어 지방 정부는 직접 타격을 받게 될 문화 분야를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 국내의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들을 365일 상영하는 독립예술영화관과 각 학교 청소년들의 단체 관람 매칭,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지역 서점에서 일괄 구매로 하는 사업 등 협정이 나와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수 없이 많다. 지방 정부는 이런 제안들을 부처간, 산하기관 경쟁이 아닌 협력적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함께 돌본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조율해 주면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공무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년 예산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의 일방적인 소 비처로서 지역이 아닌 지역 문화의 내력 속에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지역마져 지역문화를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사는 땅을 혐오하는 정신분열증의 삶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사업에서 '지역'이 소멸해버렸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에 '지역 문화' 관련 예산이 증감했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소관하는 영화 분야는 지역영화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예산 4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내의 영화제 예산은 5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50% 이상 깎였다. 겨우 12억 원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 영화를 커버하던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같은 국립박물관이라도 서울의 중앙박물관은 5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은 100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역' 자가 들어간 예산은 모조리 칼질이라는 세간의 공포가 엄살이 아니라는 반증인 셈이다.

정부가 지역을 대하는 태도는 올해 초반 해도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당장 올해 문체부 업무보고에는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 발전'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고 3월에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표플리즘'에 뒤로 가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음식 접과 카페 등지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철회됐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당초 1년으로 설정돼 있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도 원의 일일이 됐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시행 보류를 앞두고 백지화 했다. 경기침체속에 힘든 자영업자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데다 세계 각국들이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U는 2021년 7월, 뉴질랜드는 올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조차 2025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 규제 방안을 꺼냈다가 철회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포장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도 시도했던 묶음 상품 할인판매 금지 조치도 현장의 반발을 이유로 거둬 들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는 누가 보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둔 대중 연합 주의로 '표플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장기 플랜 속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일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할 정도로 여론도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철회 조치를 내린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가져다 써버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전남 장애인체전 인권·평등·화합으로 빛났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엿새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체전은 장애인체육 발전뿐 아니라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성공적인 대회였다.

14년 만에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전국 장애인체전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대추제의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 등 역대 최대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일상생활을 목표로 한 '특별한 체전'을 준비해 대회 행사나 운영에서 전남만의 특색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장애인들이 도움 없이 경기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인증(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을 갖춘 경기장 5곳의 출입로 격차를 최소화하는가 하면 건물 내부 복도 폭도 여유 있

게 잡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했다. 또한 선수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객실 입구와 화장실 등에 경사로를 설치해 편의를 극대화했다.

예향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콘서트와 축제 등을 마련해 '문화 체전'으로 승화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을만하다. 황체어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강세웅과 이미경, 휠체어 성악가 이남현의 퍼포먼스를 비롯해 장애인-비장애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장애인체전의 의미를 잘 살렸다. 제9회 광주전남 문화주간행사와 맞물려 열린 '로코(모두의) 축제'도 이목을 끌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에 이어 장애인체전도 빛나는 대회 준비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냈다. 대회 성공 개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이를 토대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세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길 바란다.

無等鼓

중세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에 이어 꽤 유명한 소묘 작품이다. 그는 고대의 인체 비례론을 거부하고 실제 사람을 데려다 눈금자를 들이대면서 측정된 결과를 근거로 그림을 그렸다. 레오나르도는 해부학에도 높은 관심을 가졌다. 화가의 입장에서 사람 몸의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빈치는 2007년 11월 네이처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차분도시'

다빈치가 르네상스를 대표하고, 그것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14세기 후반부터 200여 년간 이어진 유럽의 르네상스, '재탄생'이라는 의미의 인간 중심 사고는 몇몇 천재 예술가의 작품부터 시작해 도시 공간을 사람에 맞게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축물 높이, 도로 폭, 광장, 공원, 분수대 등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공간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러한 도시를 인본도시(人本都市)라고 부른다. 어떤 이는 르네상스를 인본주의(hu-

manism)라고도 해석했다.

광주는 차분도시(車本都市)다. 골목길에도, 넓은 도로에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가용만 가득하다. 불편함도 규제도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쉽게 차를 구입해 곳곳을 돌아다니고 세워놓기 때문이다. 올해 9월 30일 기준 광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2만 642대로, 2013년 12월 말(56만 8054대)에 비해 무려 15만 2588대(26.86%)가 증가했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유로 2~3대의 자가용을 굴리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금남로를 차 없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광주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반가운 일로, 인본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자가용 운전자들을 설득하고 주변 상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광주가 인본도시임을 말아 아닌 공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